

## Lezley Saar *BLACK GARDEN*

September 18 - November 6, 2021

Various Small Fires is pleased to present Lezley Saar's first exhibition with the gallery, and her debut presentation in Asia.

Through surrealist celestial paintings, collages, and tapestries, Saar's work explores a range of topics, among them mixed-race identity and the nuances of gender and sexuality. The daughter of the artistically acclaimed Saar family, which includes Lezley's mother Betye Saar and sister Alison Saar, this new series is an interpretation of avant-garde French poet Antonin Artaud's *Black Garden* (originally published in French as *Le Jardin Noir* in 1915). The poem uses references to nature — lilies, black water, a "capsized sun"— to create a scene that resonates with Saar for its Gothic, melancholic, and surrealist vision.

The artist read the poet's writing in French and then manipulated Artaud's writing into painted form. Rather than simply illustrating Artaud's text, Saar refers to her paintings, which take lines from the poem as titles, specifically as "translations" of the poem. Saar says that the human figures in her paintings anthropomorphize the flowers in Artaud's *jardin noir*, a point most directly embodied by the moss and flowers that crown several of her figures' heads — simultaneously headpieces and strange, surrealist appendages.

The cellular forms in the artist's paintings, seen in a number of the works here, recall many of the artist's earlier paintings. The artist is invested in symbolism, and these references to molecular biology are closely tied to the artist's commitment to investigating questions of identity — especially sexuality, gender, and race — at a literally cellular level. The artist herself is mixed-race and addresses her African American heritage in an historic context. She is especially interested in 18th and 19th century colonial history, including Mexican casta paintings— themes referenced by the artist's golden frames and her subjects' occasional colonial-style garb. The works in *Black Garden* also reflect the artist's inner life, and for Saar function as a means of escape. The paintings' Victorian, Gothic sensibilities speak to the past, but their combination with surrealist imagery and symbolism also transport us to an ethereal future — or even to another reality altogether.

**Lezley Saar** (b. 1953 Los Angeles, lives and works in Los Angeles) was born to artist parents Richard and Betye Saar. Saar's works include paintings, drawings, bookworks, photography, banners, collages, dioramas, and installations. Her various series, "The Atheneum," "Anomalies," "Mulatto Nation," "Tooth Hut," "Autist's Fables," "Madwoman in the Attic," "Monad," "Gender Renaissance," "A Conjuring of Conjurers," and "Black Garden," deal with notions of identity, race, gender, beauty, mysticism, sanity, and normalcy.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the California African American Museum, Los Angeles; Walter Maciel Gallery, Los Angeles; Merry Karnowsky Gallery, Los Angeles; Kravets/Wehby Gallery, New York; and David Beitzel Gallery, New York. Recent group exhibitions include The Crocker Art Museum, Sacramento; Arthur Roger Gallery, New Orleans; The Wende Museum, Culver City; McNay Art Museum, San Antonio; Koplín Del Rio, Los Angeles; and Roberts & Tilton, Los Angeles. Saar is included in a number of public collections, including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Museum of Contemporary Art, Los Angeles; The Studio Museum in Harlem;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he Kemper Museum, Kansas City; California African American Museum; Ackland Art Museum, Chapel Hill; The Crocker Art Museum, Sacramento; The Hessel Museum of Art, New York; and the Santa Barbara Museum of Art.

Contact [info@vsf.la](mailto:info@vsf.la) for general inquiries.



**Lezley Saar**  
*Through the black water the slow diamonds,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73.7 x 48.3 cm (29 x 19 inches)  
 LS017



**Lezley Saar**  
*With ashes and the unearthly vapor,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58.4 x 58.4 cm (23 x 23 inches)  
 LS021



**Lezley Saar**  
*Of the luminous hours glittered, strange,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78.7 x 40.6 cm (31 x 16 inches)  
 LS018



**Lezley Saar**  
*Through the tidal wave of a terrible season, 2021*  
 Acrylic and mixed media on fabric banner  
 198.1 x 129.5 cm (78 x 51 inches)  
 LS022



**Lezley Saar**  
*The key that opens wide her gates of horn To emanations of delivered souls,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76.2 x 39.4 cm (30 x 15 1/2 inches)  
 LS019



**Lezley Saar**  
*Illumination of a capsized sun, 2021*  
 Acrylic and mixed media on fabric banner  
 205.7 x 114.3 cm (81 x 45 inches)  
 LS023



**Lezley Saar**  
*The garden speaks at the edge of the tide,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55.9 x 35.6 cm (22 x 14 inches)  
 LS020



**Lezley Saar**  
*O stems behold the night offering,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78.7 x 50.8 cm (31 x 20 inches)  
 LS026



**Lezley Saar**  
*And the hardened metal of your sacred columns has trembled,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78.7 x 50.8 cm (31 x 20 inches)  
 LS025



**Lezley Saar**  
*The lilies have squandered the whole dark hoard of the lovely garden pounded by the sea,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78.7 x 40.6 cm (31 x 16 inches)  
 LS024



**Lezley Saar**  
*They have blossomed from the lands of death, These flowers which a long-wrought dream has poured, 2021*  
 Acrylic on fabric on board in found Syroco frame  
 78.7 x 40.6 cm (31 x 16 inches)  
 LS015

## 레즐리 사르 <검은 정원>

2021년 9월 18일 - 11월 6일

베리어스 스몰 파이어스는 레즐리 사르의 아시아 첫 개인전을 서울지점에서 선보인다.

사르의 작품은 초현실적인 천체 회화, 콜라주, 태피스트리를 통해 혼혈 정체성과 젠더, 섹슈얼리티 어감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한다. 작가는 어머니 베티 사르와 여동생 앨리스 사르가 속한 예술가 집안 사르 가족의 딸이다. 본 전시에서 소개하는 새로운 시리즈는 프랑수아방가르드 시인 앙토냉 아르토가 1915년 프랑스어 'Le Jardin Noir'로 출판한 『검은 정원』을 해석했다. 이 시는 백합, 검은 물, "전복된 태양"과 같은 자연을 인용한 작가의 고딕풍, 우울감, 초현실주의적 시각적 장면을 상기시킨다.

작가는 프랑스어로 된 시인의 글을 읽고 영어로 번역한 후 아르토의 글을 채색된 형태로 만들었다. 단순히 아르토의 글을 설명하는 것 보다 시의 내용을 제목으로 차용해 사르는 자신의 이미지로 "번역"했다. 사르는 그녀 작품 속 인물 형태가 아르토의 jardin noir에 있는 꽃을 의인화했다고 말한다. 이는 작가가 인물 머리의 이끼와 꽃을 직접적으로 장식한 동시에 초현실주의적인 투구와 기괴한 부속물을 구현한 지점이다.

여러 작품에서 볼 수 있듯 작품 속 세포 형태는 작가의 초기작을 상기시킨다. 작가는 상징주의를 부여하고 분자 생물학을 참고해 문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정체성, 특히 섹슈얼리티, 젠더, 인종에 관한 질문을 연구하려는 신념을 접목시켰다. 사르 자신은 혼혈이며 역사적 맥락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산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녀는 멕시코 카스타 회화 대상의 가끔 식민지 스타일 의복을 다루는 18-19세기 식민지 역사에 관심 있다. <검은 정원> 작업은 작가의 내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탈출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 회화의 빅토리아 시대, 고딕 양식 감성은 과거를 말하지만, 초현실주의 이미지와 상징주의의 결합은 우리의 미묘한 미래 혹은 완전히 다른 현실로 안내한다.

**레즐리 사르** (1953년 로스앤젤레스 출생)는 예술가 부모인 리처드 사르와 베티 사르 사이에서 태어났다. 사르 작품은 회화, 드로잉, 서적, 사진, 배너, 콜라주, 디오라마 (입체 모형), 설치가 있다. 그녀의 다양한 시리즈에는 "학당", "번칙", "물라토 국가", "치아 오두", "자폐증의 우화", "다락방 속 광녀", "모나드", "젠더 르네상스", "요술사의 마술", "검은 정원"이 있다. 이는 정체성, 인종, 젠더, 아름다움, 신비주의, 정상적 상태에 대해 다룬다. 최근 개인전은 캘리포니아 아프리카인 박물관, 로스앤젤레스 월터 마시엘 갤러리, 로스앤젤레스 메리 카노브스키, 뉴욕 크레베스/웨이 갤러리, 뉴욕 데이비드 베이젤 갤러리가 있다. 단체전은 새크라멘토 크로커 미술관, 뉴올리언스 아서 로저스 갤러리, 컬버시티 웬드 박물관, 샌안토니오 맥네이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코플린 델 리오, 로스앤젤레스 로버츠 & 틸튼 등이 있다. 사르의 작품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 할렘 스튜디오 미술관, 휴스턴 미술관, 캔자스 시티 캠퍼 미술관, 캘리포니아 아프리카인 박물관, 채플 힐 오클랜드 미술관, 새크라멘토 크로커 아트 뮤지엄, 뉴욕 허셀 미술관, 산타 바바라 미술관 등 많은 기관에 영구 소장되어 있다. 작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며 작업한다. 본 전시는 VSF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시이다.

**Various Small Fires (VSF)**는 2012년 에스더 김 바렛 (Esther Kim Varet)에 의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립되었다. 갤러리 이름은 LA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사진작가인 에드 루샤 (Ed Ruscha)의 대표적인 사진집 <다양한 작은 불꽃들과 우유 (Various Small Fires and Milk)> (1964)에서 가져왔다. 라이터의 불꽃, 타오르는 신문, 불타는 성냥, 담뱃불, 성화 등 16장의 불을 주제로 한 사진집처럼 세상을 밝히는 다양한 불이 되고 싶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9년간 VSF는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신인 작가와 중견, 원로 작가들을 소개하며 LA 미술계의 촉매자 역할을 해왔다.

할리우드에 위치한 갤러리 건물은 140여 평의 부지에 현지 건축가 존스톤 마크리 (Johnston Marklee)가 디자인했다. LA의 풍부한 자연광을 살려 화이트 큐브 갤러리를 구현했으며, 야외공간은 조각을 비롯한 다양한 설치 작품 전시도 가능하다. 사회적 책임과 환경 문제에 대한 VSF의 관심은 구체적 실천을 통한 비전으로 드러난다. 갤러리에서 선보이는 작가 절반이 여성으로, 여성 작가들이 활동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갤러리 공간은 100%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등 친환경적인 갤러리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VSF 서울은 새로운 문화 공간의 입지로 각광받는 한남동 독서당로에 자리 잡았으며 2019년 4월 1일에 개관했다. 서울 지점 개관전으로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두 작가, 빌리 알 벵스톤 (Billy Al Bengston)과 에드 루샤 (Ed Ruscha) 2인전을 개최했다. 그 외에도 조슈아 네이션슨 (Joshua Nathanson), 매스 베스 (Math Bass), 리즈 매직 레이저 (Liz Magic Laser), 조쉬 클라인 (Josh Kline), 소저너 트루스 파슨스 (Sojourner Truth Parsons), 그리고 지나 비버스 (Gina Beavers)의 개인전을 통해 작가들을 소개한다. VSF는 세계적인 갤러리들과 돈독한 관계이다. COVID-19을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뉴욕 살롱 94 (Salon 94)와 첫 번째 협업 전시에서 엘리자베스 닐 (Elizabeth Neel) 을 시작으로, 브뤼셀과 뉴욕의 클리어링 갤러리 (Clearing Gallery), 로스앤젤레스 나이트 갤러리 (Night Gallery) 등과 협업 전시를 진행했다. 앞으로 VSF를 발판삼아 서울과 로스앤젤레스가 더욱 친밀해지고 국내외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

**에스더 김 바렛 (Esther Kim Varet)** 대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예일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수학했다. 그는 뉴욕에서 경험을 쌓은 후 LA에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다. 지난 8년간 LA 미술계에서 자신만의 미학으로 갤러리를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2019년 4월 서울에 첫 지점을 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문의는 info@vsf.la / 070 8884 0107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